『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13
pp.263-288. ISSN : 1229-9618

『한국문원(韓國文苑)』 편찬의 의의와 시학적 가치 연구
- 朝鮮詩를 중심으로

노연송* · 조신화**

【목 차】

1. 서론
2. 『한국문원(韓國文苑)』 조선(朝鮮) 시의 편찬 체제와 특징
3. 선별된 조선(朝鮮) 시의 출처
4. 편찬 목적
5. 시학(詩學)의 가치와 의의
6. 결론

【초록】

근현대 시기, 한국에서는 많은 양의 한문 시가(詩歌) 총집(總集)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한문 시가 총집은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많이 유실되었는데, 조소앙(趙素昂)은 한국의 문헌들을 보존하기 위해 시대별 시가 작품을 수록한 『한국문원(韓國文苑)』을 편찬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그가 적극적으로 저작 활동을 한 것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 속 저항적 행위라 할 수 있었고, 그에 의해 편찬된 문헌들은 현재까지 계승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주지할 것은 조소앙의 『한국문원』에 수록된 시들이 시대순으로 작품을 수록한 것 외에는, 어떠한 규율도 발견할 수 없고, 작품을 창j avascript:void(0);작한 저자의 출생, 사망 연도와 같은 정보들 또한, 규칙 없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문원』이 집필될 당시 저자의 의도가 주로 선조들

* 노연송, 제1저자, 상하이대학교 중국고대문학학과 박사과정 (hannim92@naver.com)
** 조신화, 교신저자, 상하이대학교 중국고대문학학과 교수 (465536916@qq.com)

의 작품을 보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 글은 조소앙의 저작 『한국문원』을 중심으로, 조소앙이 저작을 편찬하려 했던 의도와 그의 편찬 방식, 작품의 출처, 작가의 관점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근현대 시기 한국 한시 작품을 정리한 조소앙의 저서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상흔을 입었던 한국이 과거 문학작품들을 보존하려 했던 방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문인들이 강압적 권력에 저항했던 역사를 반추하게 하고, 한국의 문화적 유산을 복구하는 과정이기에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조소앙, 『한국문원』, 편찬, 한시, 조선시

1. 서론

한국의 전통문학 중 '한시'는 조선 중기까지 선조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 장르였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문학작품이 많이 소실되자, 선대 학자들의 문학작품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 실제로 과거 문인들이 작품을 모아 시선집으로 출판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다. 특히 독립운동가들은 이러한 문학작품의 보존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조소앙의 『한국문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편찬된 서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각 시대에 우수했던 작품들을 선별하여 『한국문원』에 서술하였는데, 『해동역사(海東繹史)』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등장한 작품들을 선별하여 저술한 것은 그 일례로 볼 수 있다.

조소앙이 『한국문원』을 편찬한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과거 한국에서 유행했던 한문화(漢文化)에 대해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독립을 위한 저항적 운동이라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한국의 고대 문학들을 보존하고, 기록함으로써 소실되어 가던 선조들의 작품을 후대에 남기고자 했다. 나아가 그는 중국 시가 총집의 편찬 방식을 모방하여 『한국문원』을 편찬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 혹은 작품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한국의 문학작품을 보존할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 알리고자 했던 그의 시도는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저작들은 현대의 시점에서 『한국문원』은 고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서적이자 한국 한시 발전 및 한시사(漢詩史)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문원』을 통

해 우리는 한국 역사의 단편적인 부분과 풍토, 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소앙의 문학적 취향과 흥미, 성향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다. 또한 그 당시 한국 시인들의 시학적 견해와 조소앙의 시학적 관점을 담고 있으므로 중요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문원』은 한국 한시사와 한학사(漢學史), 민국(民國)시대 시가 총집의 편찬, 동아시아 한시학사(漢詩學史) 등의 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시학(詩學)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조소앙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문원』의 편찬 체제, 출처, 관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현대 한국 한시 총집 편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2. 『한국문원』 조선(朝鮮) 시의 편찬 체제와 특징

조소앙(趙素昻)은 근현대 한국의 정치인,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소앙집(素昻集)』, 『유방집(遺芳集)』, 『김상옥전(金相玉傳)』 등 다양한 작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문집을 출판하는 것 외에도 국가 문서 작성이나 신문 광고, 잡지 발행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글은 대부분 한국의 역사나 문화, 또는 자신의 감정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인데, 중국에서 망명하던 시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저작은 그 당시 중국 신문에도 기재되었던 『한국문원』이다. 『한국문원』은 역대 한국의 문장과 시를 한데 모아놓은 것으로, 고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창작되었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학, 외교, 창업, 전쟁 등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1)]

『한국문원』은 조소앙이 편집하고, 1932년 10월 1일 文記印刷局에서 인쇄하여, 槿花學社에서 출판한 저서이다. 이후 1994년 亞細亞文化社에서 재출판되었으며, 두 版本 모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을제(趙乙濟)가 필사한 影印本은 2005년 鶴泉文范社에서 출판되었고, 현재 한양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문원』은 총 9권 1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편은 1권에서 6권까지로, 부여, 마한, 고구려, 발해, 백제, 후백제, 신라, 고려, 조선의 문장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고, 작가 109명의 문장 143편이 실려있다. 1권 '부여'에는 부여왕의 「讓高句麗琉璃王書」, '마한'에는 마한왕의 「讓百濟始祖溫祚王書」가 수록되어 있고, '고구려'에는 11편, 2권 '발해'에

1) 황호덕, 「근현대 동아시아에서 지성과 담론의 교류; 정체(政體)와 문체(文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어정치학과 조소앙(趙素昻) - 한문자(漢文字)의 맹서(盟誓), 조소앙의 선언, 성명, 강령 집필과 『한국문원』을 중심으로」, 『사림』, 45집, 2013, pp.51-53.

는 7편, 3권 '백제'에는 6편, '후백제'에는 견훤의 「檄高麗太祖」와 견신검의 「太赦敎」가 수록되어 있다. 4권 '신라'에는 32편, 5권 '고려'에는 42편, 6권 '조선'에는 41편이 수록되어 있다. 하편은 7권부터 9권까지로 연대순으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7권 '고대, 고구려, 신라'에는 25수, 8권 '고려'에는 82수, 9권 '조선'에는 총 292수의 시가 실려있다. 조소앙은 『한국문원』을 편찬할 당시 고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활동했던 시인들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구별하여 차례에 따라 수록하였다. 그러나 그가 시대에 따라 작품을 구분했던 것 외에 구체적인 편찬 체제나 형식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본문에서는 『한국문원』의 편찬 체제와 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각 권 시인 작품의 선별과 편성의 문제

『한국문원』은 각 시대의 순서에 따라 선별한 작품을 수록해 놓은 시선집이다.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하편(下篇)에는 시인 187명의 작품 423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7권 '고대, 고구려, 신라'에는 시인 21명의 시 25수, 8권 '고려'에는 시인 47명의 시 82수, 9권 '조선'에는 시인 119명의 316수 시가 실려있다. '고대, 고구려, 신라'까지의 작품이 제일 적고, 연대에 따라 작품 수가 점차 늘어나 조선시대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조소앙이 『한국문원』을 편찬했던 시기는 그가 주로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때였기에 타국 땅에서 그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그가 조선 이전의 문학작품들을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는 그가 조선시대 작가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편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럼에도 조소앙의 작품에서 고대 작품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고대 작품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조소앙은 한치윤의 『해동역사』와 같은 사서(史書)를 주로 참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7권에는 주로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많이 수록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일찍이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도 꽤 높은 평판을 얻었던 신라시대 학자 최치원과 승려 원효의 작품 「鄕樂雜歌」,「伽倻山武陵橋」,「智異山花開洞」과 「求妻偈」,「輓蛇福母」,「偈」이 각각 3수씩 수록되어 있다. 8권 '고려' 때부터는 작품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일례로 정몽주의 시 14수, 이색의 시 8수, 일연의 시 7수, 이숭인의 시 「詠史」,「僧舍」,「輓金太常」 등이 수록되었다.

9권에 수록된 조선 시는 조선 전기부터 중기까지의 왕, 장군, 문인, 승려, 문신(文臣), 여류시인 등 다양한 시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그 비중이 가장 큰 편이다. 조선 중기 시인의 작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달과 허난설헌의 시가 가장 많이 실려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달은 최경창, 백광훈은 모두 '삼당

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문인이었으나, 조소앙은 이들의 작품 중 백광훈의 시는 단 2수만, 최경창의 시는 4수만을 선별하였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이달의 시는 28수나 수록하였고, 이달에게 지도를 받았던 허난설헌[2]의 시는 21수가 기록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조소앙은 작품을 선별할 때 결코 신분이나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그의 판단 기준에는 작품의 문학성이나 인지도만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각 권에 선별된 작품의 편성 순서의 문제

『한국문원』 각 권에 수록된 작품의 배열순서가 체계적이지 않은데, 이는 조소앙이 무질서하게 작품을 선별해 왔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7권의 앞부분에는 여옥, 유리왕, 영양왕, 정법사, 진덕여왕, 왕거인, 설요, 김지장, 최치원, 원효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중 693년에 세상을 떠난 설요와 617년에 태어난 원효가 뒤편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출생 및 사망 연도에 따라 배열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원』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다른 시선집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현상은 조소앙이 다른 문집에서 작품을 선별해 올 때 해당 문집의 배열순서를 그대로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면 7권 '고대, 고구려, 신라' 시의 배열순서가 『해동역사』에 수록된 작품의 배열순서와 일치하며, 『해동역사』에 수록된 작품의 배열순서는 『열조시집(列朝詩集)』의 작품과 순서가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문원』의 모든 작품을 『해동역사』에서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앞부분에는 『해동역사』에 수록되어 있는 시가, 뒷부분에는 다른 서적에서 발췌해 온 작품의 순서대로 배열되었다.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의 출처 순서는 『해동역사』, 『삼국유사』, 『삼국사기』순으로, 이는 조선 후기에서 고려까지 시대의 순서에 따라 선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택리지(擇里志)』는 1751년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배열되어 있다. 이는 『택리지』가 앞부분에 위치한 사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지리서이기 때문이다. 8권 '고려' 시의 앞부분은 문종, 예종, 충렬왕, 공민왕까지 왕의 즉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만, 신숙부터 의종, 예종, 고종, 충목왕까지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시대순으로 배열되었다는 규칙과 맞지 않는다. 이는 조소앙이 『해동역사』에서 시를 선별할 때 원본의 배열순서를 따랐으나, 『한국문원』에 수록할 당시 다른 서적에서 선별한 작품과 혼재되었음을 나타낸다.

조소앙은 대체로 왕의 시를 먼저 수록한 뒤 관원(官員)의 작품을 뒤에 배열했는데,

---

2) 많은 이들이 주지하듯, 허난설헌은 그 당시 한중 양국에서 명성을 떨쳤던 여류시인이었다는 점은 상기할 지점이다.

예컨대 문종의 시를 먼저 수록한 뒤 한교여부터 이자량까지 문신(文臣)들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예종의 시를 수록한 후 뒷부분에 관원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조소앙이 간혹 주제에 따라 시를 분류하여 배열했다는 것이다. 예시로 신숙의 「歸田詩」, 문극겸의 「下台詩」, 무우자(無右子)의 「壁上去國圖」, 이성의 「歸田」을 전부 모아 하나로 분류하였으며, 이제현의 「鄭瓜亭曲」과 이숭인의 「鄭瓜亭曲」은 주제는 같으나 서로 다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란히 배열했다. 9권 '조선' 시의 배열순서는 '고려' 시의 배열순서와 흡사한 점이 있는데, 왕, 신하, 백성, 작자 미상 순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열순서는 왕의 지위를 존중하는 조소앙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자, 원본 서적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3) 각 권에 선별된 작품 수와 배열

『한국문원』에 수록된 시인의 수와 각 시인의 작품 수가 같지 않은데, 이는 작품 출처의 한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조소앙이 작품을 선별하기 위해 참고한 서적은 한정되어 있었기에 모든 시인의 작품이 균일하게 분배되기란 쉽지 않았다. 먼저 7권에는 시인 단 18명의 작품만을 수록했는데, 최치원과 원효의 작품이 각각 3수씩 수록되었고, 그 외 시인들의 작품은 모두 1수씩 수록되었다. 그리고 8권에는 총 83수의 작품이 수록되었는데, 정몽주 14수, 이색 8수, 일연 7수, 이숭인 4수, 이인로 3수, 원천석 3수, 현종과 이성계, 조운흘의 작품이 각각 2수씩 수록되어 있고, 문종, 김제, 한교여, 정가신, 설손 등 다른 시인들의 작품은 각각 1수씩 수록되어 있다.

끝으로 9권에는 가장 방대한 양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는데 이달 28수, 허난설헌 21수, 이숙원 11수, 김종직과 허균이 각각 10수, 김상헌 9수, 소세양과 정희량이 각각 8수, 허종, 성현, 허봉, 신광한의 작품이 각각 6수씩, 이순신과 김정이 각각 5수, 최경창의 작품 4수 등이 있다. 또한 성삼문, 남효온, 신숙주, 서거정, 이행, 정사룡, 석휴정, 조희일, 성씨 등의 작품이 각 3수씩 수록되어 있고, 백광훈, 박원형, 박팽년, 이개, 권견, 노공필, 이희보, 김안로, 윤인경, 심언광, 허흡, 선조, 서경덕, 이이, 최수성, 임제, 이승소, 구원길의 작품이 각 2수씩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 김약항, 양녕군, 강준백, 태종, 정도전, 조서, 조려, 김시습, 유호인, 이황, 유응부, 조광조, 윤자운, 강혼, 이극감, 신종호, 백원항, 최응현 등의 작품이 개별적으로 1수씩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작품 수를 고르지 않게 배열해 놓은 방식은 일견 작품에 대한 독이성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조소앙의 저서는 시가 창작되던 각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었다.

조소앙은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을 출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했다. 7권을 기준으로 보면, 『해동역사』, 『삼국사기악지(三國史記樂誌)』, 『삼국유사』, 『택리지』, 『동사강목(東史綱目)』순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차례대로 수록했는데, 『해동역사』와 『삼국유사』에서 선별해 온 작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8권은 앞에서 중간 부분까지는 『해동역사』, 『고려사(高麗史)』, 『동사강목』, 『삼국유사』, 『동인시화(東人詩話)』, 『해동악부(海東樂府)』순으로 작품을 배열했으며 중간 부분 이후부터는 『해동역사』에서 선별한 정몽주의 시 14수를 연달아 수록하였고, 그 뒤로는 『해동역사』에 수록된 작품의 순서에 따라 마지막까지 배열하였다.

9권은 『자해필담(紫海筆談)』, 『양화록(養花錄)』, 『지봉유설(芝峯類說)』, 『해동역사』, 『택리지』, 『추강집(秋江集)』, 『동각잡기(東閣雜記)』, 『지북우담(池北偶談)』, 『일월록(日月錄)』, 『석주집(石洲集)』, 『혼정록(混定錄)』, 『연려실기술별집(然黎室記述別集)』순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배열했으며, 중간부터는 다시 『해동역사』에 수록된 작품의 순서대로 연이어 수록했다. 추가로 덕개, 운혜, 조인규의 시는 각각 『열조시집』, 『서하집(西河集)』, 『두남시집(斗南詩集)』에서 선별되었고, 한국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박팽년과 성삼문의 단가(短歌)가 3수씩 수록되었다.

앞의 상황을 토대로 7권, 8권, 9권의 작품들은 주로 『해동역사』에서 선별된 것이며 『해동역사』에서 선별된 작품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할 것은, 조소앙은 일부 연시(蓮詩)에 대한 편집배열 체제를 통일시키지 않았는데, 가령 9권에 수록된 허봉의 「牽情引」 4수는 단락을 나누지 않고 '(1),(2),(3),(4)'로 숫자를 매겨 연속으로 배열하였다. 이는 매 수 단락을 나누어 배열한 다른 연시와는 배열 방식이 다른데, 조소앙은 내용의 관련성을 중요시하여 시의 내용이 이어져 있을 때는 숫자를 매겨서라도 한 단락에 연속해서 배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배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시의 문체(詩體)에 대한 주석과 평론 교정의 문제

조소앙은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 다른 서적에서 작품을 선별하여 그대로 모사하는 방식을 택했으므로, 대다수 작품이 원본의 작품 순서, 출처, 주석 및 소전(小傳)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일부 작품에는 소전이나 시제에 관한 주석, 시화나 평론 등도 추가되었는데, 이는 조소앙이 작품을 필사할 때 원본에 이미 표기되어 있던 시의 출처를 함께 기록하여, 독자가 원본을 찾기 편리하도록 한 것이다. 조소앙은 작가 개인의 문집뿐만 아니라 역사서, 필기(筆記), 시화 등에서 작품을 선별할 때도 모두 그

출처를 기록하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공을 들였다.

『한국문원』에서 각주가 달린 작품은 7권에 9수, 8권에 16수, 9권에 35수로 대략 60수에 이른다. 다음은 각 권에 수록된 작품에 붙여진 주석의 예시이다. 8권에 수록된 이성의 「賞蓮詩」에는 "귀인 곽예(郭預)/ 맨발로 우산을 들고/ 홀로 용화지에 이르러/ 연꽃을 감상하며 시를 지으니/ 모두 그 우아함에 감탄하며/ 어떤 이는 이 시를 노래하여 불렀다."[3]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인로의 「鄭爪亭曲」에는 "고려 의종 때/ 정서(鄭敍)는 내시로 임명되어/ 동래로 가서/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그리운 왕을 추억하는데/ 그 가사가 매우 슬퍼/ 훗날 사람들이 정조정곡(鄭爪亭曲)이라 불렀다.// 이제현(李齋賢)과 이숭인(李崇仁)이 그를 모방하여 시를 지었다."[4]라고 주석이 달려있다.

다음은 작가의 소전을 기록해 놓은 주석의 예시이다. 예컨대 7권 설요의 「返俗謠」에는 "열다섯에 머리를 밀고, 스님으로 출가했으나/ 열여섯에 노래를 부르며/ 곽원진(郭元振)의 첩이 되었다."[5]라고 작가의 생애를 서술해 놓았고, 김지장의 「送童子下山」에 "신라의 왕자이자/ 지덕(至德)초기에/ 항해를 하며/ 주화산에 머물렀다."[6]라고 기록해 놓았다. 또 다른 주석의 일부에는 소전과 이야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7권에 수록된 최치원의 「鄕樂雜歌」에는 "신라에는 향악과 잡가가 있었으며/ 최치원(崔致遠)은 이것들을 한시로 번역했다."[7]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도 주석에 평론을 서술해 놓은 작품이 있는데, 8권에 수록된 안유(安裕)의 「慕仲尼」에서는 "고려 때는 불교를 숭배하고 유교를 억압시켰으나/ 안유(安裕)만이 유학을 선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8]라는 내용의 평론이 쓰여있다. 소전 또는 다른 정보를 기록해 놓은 주석과 달리 작품에 대한 평론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조소앙은 작품의 출처를 말미에 상세히 표기하며, 출처가 동일한 작품은 함께 배열하고, 가끔 교정작업이나 주석을 추가하기도 했다. 『한국문원』에서 작품의 출처는 대체로 시의 말미에 표기되며, 가령 9권에 수록된 허봉의 「出山別元泰學」의 첫 구절 "花宮星鬥寒相映"에서 "花"에 달린 주석에 "『四朝詩選』作'北'."라고 추가로 설명을 덧붙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허난설헌의 「四時歌」4수에 "이 시는 『난설헌집』의 원

3) "貴人郭預. 跣足持傘. 獨至龍化池. 賞蓮賦詩. 人皆羨其雅. 有人作此詩以歌之.", 趙素昂, 「賞蓮詩」, 『韓國文苑』, 第8卷, 槿花學社, 1932, p.195.
4) "高麗毅宗時. 鄭敍. 爲內侍郎中. 流東萊. 築亭種爪. 撫琴作歌. 以寓戀君之意. 詞甚凄惋. 後人. 名其曲. 爲鄭爪亭曲. 李齋賢李崇仁. 倣而爲詩.", 趙素昂, 「鄭爪亭曲」, 『韓國文苑』, 第8卷, 槿花學社, 1932, p.196.
5) "十五剪發出家. 十六爲謠. 郭元振妾也.", 趙素昂, 「返俗謠」, 『韓國文苑』, 第7卷, p.183.
6) "新羅王子也. 至德初. 航海. 居九華山.", 趙素昂, 「送童子下山」, 『韓國文苑』, 第7卷, p.183.
7) "新羅. 有鄕樂雜歌. 崔致遠譯以漢詩.", 趙素昂, 「鄕樂雜歌」, 『韓國文苑』, 第7卷, p.184.
8) "高麗時崇佛抑儒. 惟安裕. 提倡儒敎, 人多宗之.", 趙素昂, 「慕仲尼」, 『韓國文苑』, 第8卷, p.198.

문과 차이가 있으며, 『해동역사』에도 실려있다."[9]라고 기록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설명이라도 덧붙여 놓았던 그의 노력이 드러난다.

9권 허난설헌의 「廣寒殿玉樓上梁文」에는 "서당에서 이야기하건대, 조선의 여랑 허경번이/ 8세에 광한전 옥루 위의 상량문을 지었으나, 아직 그 글을 보지 못했노라./ 재미로 쓴 글을 보충하여/ 지금은 『난설헌집』에서 그 글을 찾아볼 수 있으니/ 본국에서도 자주 회자된다./ 이제 그 전문(全文)을 기록해 보겠다."[10]라는 해설을 덧붙였는데, 이는 조소앙이 작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보완하고자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시로 9권에 수록된 조광조의 「成世昌夢靜庵」에 달린 주석에 "조광조(趙光祖)가 세상을 떠난 뒤, 꿈에서 다시 나타나/ 성세창에게 이 시를 선물했다."라고 기록했으나, 시의 말미에는 "이 시는 김정(金淨)을 위해 지은 시이며/ 야언별집(野言別集)에 따라 이 시를 소개하겠다."[11]라고 서술했다. 따라서 수정된 주석에 따르면 작가는 조광조가 아니라 성세창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조소앙의 주석이 맞다면, 그것은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올바른 주석은 "조광조가 세상을 떠난 뒤 꿈에서 다시 나타나 성세창에게 이 시를 선물했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조소앙이 작품의 출처를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문원』은 크게 시대의 순서에 따라 작품을 수록했지만, 각 권 안에 수록된 시들은 특정한 규칙이나 작가의 생몰년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과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문원』은 조상들의 작품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어떠한 형식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였는데, 대다수 작품이 모두 조소앙이 직접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원』은 다양한 서적의 제각기 다른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선별된 조선 시의 출처

조소앙은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 『해동역사』, 『삼국유사』 등의 서적에서 작품을 선별해 왔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작품의 출처 분류를 원작에 기반하고자 한다. 조소앙은 대부분의 작품을 『해동역사』에서 선별하였는데, 그는 주로 한국 시가 수록된 47권, 48권, 49권을 참고하였다. 이외에도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역사서, 총집, 시선집, 시화, 필기, 별집 등 여러 서적을 참고했다. 그는 한중 양국의 서적뿐만 아니

9) "接此詩與兰雪集本文有異. 海東繹史", 趙素昂, 「四時歌」, 『韓國文苑』, 第9卷, p.309.
10) "西堂雜俎雲朝鮮女郎許景樊. 八歲作廣寒殿玉楼上梁文. 惜未見其文. 戲筆補之雲. 今據許兰雪本集中. 載上梁文. 亦膾炙本國. 今錄其全文.", 趙素昂, 「廣寒殿玉樓上梁文」, 『韓國文苑』, 第9卷, p.314.
11) "或以此詩爲金淨事. 今依野言別集.", 趙素昂, 「成世昌夢靜庵」, 『韓國文苑』, 第9卷, p.232.

라 일본의 서적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로써 그가 소실된 작품을 정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한국문원』에서는 그 시기 문학의 발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해동역사』에서 선별한 다수의 작품

『한국문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소앙이 다수의 작품을 『해동역사』에서 선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권에 수록된 시의 수가 적다는 점은 『해동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한치윤의 『해동역사』에는 47권부터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의 시가 시대순으로 수록되었으나, 고구려와 신라 시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한국문원』 7권의 초반에 수록된 작품을 보면 『해동역사』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는 여옥의 「箜篌引」이 두 서적의 시작 지점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뒤이어 유리왕의 「人蔘贊」, 정법사의 「詠孤石」 등도 『해동역사』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 수록되었다.

조소앙은 시의 말미에 작품의 출처를 표기해 두었으며 『전당시(全唐詩)』, 『수서(隋書)』, 『고시기(古詩紀)』 등의 주석이 『해동역사』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가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 『해동역사』에서 곧바로 가져온 작품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에서 선별한 시도 수록되었는데, 최치원의 시를 예로 들면 앞부분에 1수, 뒷부분에 2수가 수록되어 각각 다른 부분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조소앙이 『삼국유사』와 『택리지』에서 시를 선별해 올 때 각 서적에 수록되어 있던 작품의 순서를 변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배열했기 때문이다.

이의 일례로 정몽주의 시 14수, 이색의 시 8수, 일연의 시 7수, 이숭인의 시 「詠史」, 「僧舍」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 7권에서는 개별 시인마다 1수씩만 수록되어 있으며, 뒤편에 시인 1명의 작품을 여러 수 수록해 놓았는데, 이 경우에는 정몽주, 이색, 이숭인의 시가 모두 『해동역사』의 기존 순서대로 배열되었으며, 일연의 시는 『삼국유사』의 순서를 따랐다. 조소앙은 그 당시 조선에서 유명했던 작가의 시를 편파적으로 많이 수록한 것이 아니라 한중 양국에서 모두 명성이 있었던 작가의 작품을 선별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문원』에서는 『해동역사』에 수록된 『열조시집』의 작품이 주를 이루며 가장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서도 조소앙이 편찬 당시 주로 『해동역사』에서 작품을 선정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은 『열조시집』을 비롯해 중국의 유명 시집 『명시종』에 선별되었던 조선 시인들의 작품이며, 이는 이미 중국 문인

들에게 인정받은 작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은 전반적으로 원본의 출처가 『열조시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사서 및 시선집 등의 순서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별집에서 선별해 온 작품의 수는 결코 많지 않으며 간헐적으로 수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과 『해동역사』의 작품은 동일하며, 비교를 통해 『해동역사』와 원본 사이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과 『해동역사』의 작품은 한자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예를 들어 진덕여왕의 「太平頌」중 "和風凝宇宙"가 『삼국사기』에서는 "淳风凝幽顯"으로 쓰여 있고, 정몽주의 「皇州」중 "鳳閣祥光动曉螭, 漢庭歌彻大風詩."는 『동문선』16권과 『정포은선생문집(鄭圃隱先生文集)』에 "尺劍龍飛定四維, 一時豪杰爲扶持."로 작성되어 있고, "始知聖澤深無限"는 『동문선』에 "始知盛代功臣後."으로 쓰여있다. 이로써 조소앙이 작품을 선별할 때 참고한 서적과 원본 출처의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선별된 시의 출처 - 사서(史書)

먼저, 고찰을 통해 우리는 조소앙의 『한국문원』의 작품이 역사서에서 다수의 작품을 선정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사서로는 『삼국유사』, 『해동역사』, 『수서』, 『당서(唐書)』 등이 있는데, 조소앙이 주로 참고한 『해동역사』는 한치윤이 1799년 중국에 방문한 후 곧바로 편집했던 조선의 통사서이다. 조소앙이 이런 사서들을 다양하게 참고했던 것은 그가 우리 선조들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 국가 간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해동악부』, 『동사강목』, 『삼국유사』, 『고려사(高麗史)』, 『삼국사기』, 『삼국사기악지(三國史記樂志)』, 『동각잡기(東閣雜記)』, 『병진정사록(丙辰丁巳錄)』, 『택리지』 등의 작품에서 시를 선별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정몽주의 「和太宗歌」와 이색의 「傷心」은 『해동악부』에서 가져온 것이고, 현종의 「神穴寺二首」, 「平契丹後賜手筆於薑邯贊」, 작자 미상의 「鮑石亭繁華曲」는 『동사강목』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장의 「慈藏法師夢得神偈」, 원효의 「求妻偈」,「挽虵福母」, 사복의 「挽母」는 『삼국유사』에서 선별한 것이고, 신숙의 「歸田詩」, 문극겸의 「下臺詩」, 이성의 「歸田詩」, 「懷舊」는 『고려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색의 「賀李成桂征倭凱旋」, 박팽년의 「宴府中」는 『동각잡기』에서 선별한 것이고, 유리왕의 「憶雉姬」는 『삼국사기』에서 가져왔다. 최치원의 「鄕樂雜歌」는 『삼국사기악지』를 인용한 것이고, 최치원의 「伽倻山武陵橋」와 「智異山花開洞」, 이황의 「飛仙花樹」는 『택리지』에서 가져왔으며, 정여창의 「四月吟」은 『병진정사록』에서 선별해 왔다. 을지문덕의 「檄隨將於仲文詩」는 『수서』에서, 진덕여왕의 「

太平頌」은 『당서』에서, 정몽주의 「驪興淸心樓」와 이색의 「驪興淸心樓」은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에서 가져왔다.

3) 선별된 시의 출처 - 총집(總集)과 별집(別集)

조소앙은 시가 총집과 선본(选本)에서 많은 작품을 선별해 왔는데, 그중에는 중국 문인이 편집한 『열조시집』, 『명시종』, 『전당시(全唐詩)』 등의 서적도 있다. 조소앙이 중국 문인들의 작품까지 살펴봤다는 것은 그가 중국 문인의 작품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깊게 연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조소앙이 작품을 선별할 때, 중국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다는 것은 그가 한중 양국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우리 선조들의 작품을 『한국문원』에 수록함으로써 그 우수함을 국제로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옥의 「箜篌引」, 정법사의 「詠孤石」는 중국의 고전 시집 『고시기(古詩紀)』에서 가져왔고, 왕거인의 「獄中詩」, 설요의 「返俗謠」, 김지장의 「送童子下山」, 신라 사신의 「過海聯句」는 『전당시』에서 선별해 왔다. 정몽주의 「皇州」,「感遇」,「江南柳」, 성석린의 「送人之金剛山」, 이색의 「瀼浦弄月」,「早行」, 이숭인의 「詠史」,「僧舍」, 정추의 「汙吏」, 김구용의 「江水」, 조운흘의 「即事」, 정도전의 「重九」는 전부 『열조시집』에서 가져왔다. 설손의 「山雨」, 이첨의 「雜詠」, 권우의 「竹長寺」, 권근의 「題鶴鳴樓」, 조운흘의 「白題墓誌」, 김종직의 「佛國寺」, 신숙주의 「次韻登漢江樓」, 권람의 「登漢江樓二首」,「楊花渡次陳給事韻」은 『명시종』을 참고한 것이다.

그밖에, 시인의 개인 별집에서 선별해 온 작품은 『서애집(西崖集)』에서 선별한 이색의 「偶吟」, 『어계문집(漁溪文集)』에서 선별한 조려의 「九日登高」, 『백사집(白沙集)』에서 선별한 이항복의 「挽權栗」, 『추강집(秋江集)』에서 선별한 남효온의 「吊六臣」, 『석주집(石洲集)』에서 선별한 권필의 「夢金德齡醉時歌」, 『감구집(感舊集)』에서 선별한 김상헌의 「曉發平島」,「登州次吳秀才韻二首」,「東方朔故里」,「次同行金禦史韻」,「早春二首」, 『서하집(西河集)』에서 선별한 운혜의 「詠洗妝水」, 『두남시집(鬥南詩集)』에서 선별한 조인규의 「途中送別」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소앙은 다양한 문헌에서 작품을 수집했고, 이는 7권의 시들이 심덕잠(沈德潛)의 『고시원(古詩源)』과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한국 고대 시가 편집(韓國古代詩歌輯佚)"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선별된 시의 출처 - 각종 시화(詩話)와 필기(筆記)

조소앙은 다양한 시화(詩話)를 참고하여 작품을 선정했다. 조소앙은 다른 문인들이 자신이 선정한 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록된

작품의 작가와 관련된 평론을 찾아보는 것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후손이 『한국문원』을 자료로 참고할 때도 작품 본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기에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열정을 쏟았던 것이다. 『한국문원』에 수록된 시화로는 『정지거시화(靜志居詩話)』, 『동인시화(東人詩話)』『태평청화(太平淸話)』 등이 있다. 허종의 「句」, 정사룡의 「句」, 심언광의 「望遠亭」, 허흡의 「句」, 구원의 「挽崔彦沉」는 『정지거시화』에서 선별했고, 이성계의 「偶吟」는 『동인시화』에서, 윤근수의 「懷汪伯玉汪元美二先生詩」는 『태평청화』에서, 이인로의 「杏花鸚鵡圖」, 성간의 「漁父」, 최숙생의 「贈采芝」, 최해의 「雨荷」는 『간재잡설』을 참고하여 가져온 것이다. 다른 참고 서적의 종류에 비교하면 시화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찾기 쉽지 않은 서적 또한 참고하여 작품을 선별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또한, 조소앙은 기존의 필기(筆記)를 참고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연려실기술』, 『균랑우필(筠廊偶筆)』, 『천창일록(篷窗日錄)』, 『승수연담(澠水燕談)』, 『지북우담』, 『자해필담』, 『양화록(養花錄)』, 『석림연어(石林燕語)』, 『일하구문(日下舊聞)』, 『용비어천가(龍飛禦天歌)』, 『월정만필(月汀漫筆)』, 『지봉유설』,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 『일월록』, 『고려도경(高麗圖經)』 등 다수 있다. 다음으로 숙종의 「題檀君祠」은 『연려실기술』에서, 윤근수의 「楊經理祠碑詩」는 『균랑우필』에서, 문종의 「夢至汴京作」은 『봉창일록(篷窗日錄)』에서, 김제의 「龜山寺」는 『승수연담』에서, 정지상의 「醉後」, 정도전의 「嗚呼島田橫」, 김종직의 「仙槎寺」는 『지북우담』에서 선별한 것이다.

양녕군의 「題僧軸」는 『자해필담』에서, 강회백의 「詠梅」는 『양화록』에서, 한교여의 「書笏呈葉館伴」은 『석림연어』에서, 정가신의 「詠摩訶鉢國駱駝鳥卵」은 『일하구문』에서, 이색의 「送李成桂討女真胡拔都」은 『용비어천가』에서, 이색의 「言志」은 『월정만필』에서, 태종의 「詠扇」은 『지봉유설』에서, 선조의 「義州」는 『시동서분당심극(時東西分黨甚劇)』에서, 석휴정의 「題影幀」은 『해동명장전』에서, 권필의 「挽義兵將趙憲」은 『일월록』에서, 선조의 「憤和倭說」은 『혼정록』에서, 작자미상의 「廣化門春帖子」와 「鹹寧節宴口號」는 『고려도경』에서 발췌한 것이다. 또한, 일부 작품은 『명시종』에도 중복되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두 서적의 출처를 모두 표기했다. 다음은 『명시종』에도 중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작품 일부인데, 이색의 「瀼浦弄月」, 이숭인의 「挽金太常」, 조운흘의 「即事」, 조서의 「五靈廟」, 정희량의 「偶題」, 박원형의 「登漢江樓次張黃門韻二首」와 「渡大同江次韻」, 강혼의 「贈妓」 등이 있다.

주지할 것은, 『한국문원』은 당시 상하이에 머물고 있었던 조소앙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시를 정리해 놓은 서적을 참고하지 못했고, 한국의 근현대 시는 선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소앙은 주로 역사서와 중국인이 남긴 기록, 시선집, 필기 등을 참고하여 『한국문원』을 편집했는데, 그가 중국에서 망명하고 있던 시기에 고대부

터 조선까지 모든 작품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사나 악부와는 다르게 시의 수량은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모두 편집하기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조소앙은 각종 서적을 참고하여 작품을 선별해 내는 방식을 택했으며, 중국에 소장되어 있던 한국과 관련된 문헌, 일례로 사서나 총집 등을 참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그가 작품을 선별할 때 개별적으로 개인 문집을 살펴보는 것보다 이미 편집된 서적을 참고하는 것이 더욱 수월했고, 다양한 양질의 작품을 수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더불어 근현대 시는 사서와 총집 등의 문헌에 수록된 분량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기에 『한국문원』에도 적은 비율로 수록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4. 편찬 목적

『한국문원』은 조소앙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그의 동생 조시원(趙時元)이 1931년 상하이에서 출판한 저작으로, 제목은 장계(張繼)가 지었다. 표지에는 장계가 직접 붓글씨로 쓴 “兄弟急難為韓國志士趙素昂『韓國文苑』題寫”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장계(1882-1947)는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창셴(滄縣) 사람으로 본명은 張溥, 이명(異名)은 張繼, 별호(別號)는 博泉、自然生이다. 그는 근대 정치가이자 1903년 “蘇報”에서 일했고, 장사검(章士劍)과 함께 『국민일일보(國民日日報)』를 창간했다. 1904년에 “華興會”에 가입했으며, 1905년에는 “同盟會”에 참여했고, 『民報』의 편집 및 발행에 참여했다. 조소앙의 동생이자 편집자인 조시원(1904-1982)은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인물로, 본명 조용원(趙鏞元), 호 (胡逸), 본관은 함안(咸安)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한국독립당특파원(韓國獨立黨特派員)이자 광복군총사령부 부군(光復軍總司令部副官) 등의 직책을 맡았던 독립운동가로, 1920년 상해로 망명하여 『중국대공보(中國大公報)』와 『시민일보한보(市民日報韓報)』의 기자 및 편집위원 등의 업무를 맡으며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1931년에 『한국문원』을 발행하고 1935년에 조소앙, 홍진, 김사집 등과 함께 월간지 『진광(震光)』을 발행했다. 1978년에는 조소앙의 『소앙선생문집』 상, 하편을 출판했는데, 이 저서는 조소앙의 사상이 반영된 사료(史料)이다. 『한국문원』은 조소앙이 직접 편찬하고 서(序)를 작성했으며, 조시원이 편집한 저서이다. 현재 출판사와 관련된 정보는 찾기 어렵지만 조소앙이 편집한 정기간행물 『新書到津－－韓國文苑』에는 1933년 1월부터 몇 달간 『대공보(大公報)』에 광고로 게재된 적이 있다.

조소앙이 『한국문원』을 편찬한 가장 주요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바

로 구망(救亡), 구학(救學), 구국(救國)이었다. 즉,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을 확보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문화를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조소앙은 당시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는데, 그는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구국 활동에 참여하며 각국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문건을 발송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더불어, 조소앙은 사상과 교육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가 한국의 역사를 중요시했던 만큼, 우리 선조들의 작품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한국 고유의 문화와 문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소앙은 늘 한국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독립당(韓國獨立堂)"과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상해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 선조들의 유산을 오랫동안 보존하고자 『한국문원』을 편찬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이는 한국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구국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또 다른 목적과 동기가 있었는데, 아래와 같다.

1) 한국의 "문원영화(文苑英華)" 편찬

조소앙은 중국 시가 총집의 편찬 방식을 모방하여 한국의 "문원영화(文苑英華)"[12]를 편찬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한국인이 처음으로 한시를 짓기 시작했을 무렵, 많은 사람이 중국 시인의 시구나 비유법을 자주 인용했는데, 이는 중국 고대 시인들의 작품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이 한시를 창작하던 초반에는 중국 한시를 모방하는 데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점차 한국 고유의 풍격을 가지게 되며 발전해 나갔다. 한시를 직접 창작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문집을 편찬하기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문인의 시가 총집 편찬 방식을 모방했으며, 이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였다. 중국 한시는 한국인이 한시 창작을 시작한 초기에 중요한 참고 자료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모방했던 중국 시가 총집으로는 『고시원(古詩源)』과 『고시기(古詩紀)』 등이 있다. 조소앙은 『한국문원』의 서(序)에서

> "이 서적에는 지난 2000여년 간의 명문과 아름다운 구절들이 담겨있다. 역사 속 창조의 어려움을 겪은 흔적, 굳센 장수들의 충성과 국가를 위한 헌신, 충실한 의인과 정의로운 자들의 기개, 훌륭한 덕을 지닌 이들, 아름다운 여인과 뛰어난 인재, 유명한 스님의 작품들이 모두 이곳에 담겨있다. 일관되게 담겨있는 작품은 마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글에서 빛이 난다. 『한국문원』은 한 편의 "영화(英華)"로, 화려함만 추

12) 중국 북송 시대에 성립된 시문집이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남아있는 것이다."[13]

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그의 목적이 중국의 『문원영화(文苑英華)』와 유사한 저작을 편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그는 중국에서 망명 중이었으므로, 중국 문헌을 참고하여 작품을 수집할 수밖에 없었다.

2) 한국 한문 작품의 해외 전파

조소앙이 집필한 『한국문원』의 서(序)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한국문원』을 편찬한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한국인의 작품을 번역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었다. 서문에는

"나는 런던 박물관에서 한국의 『삼망행실록(三綱行實錄)』을 보았는데, 이는 한국의 인쇄물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파리에서는 『춘향전』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가치있는 문학작품이었다. 상하이에 와서는, 『호대왕비문(好大王碑文)』을 보았는데, 이는 고대 금석(金石)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 중 하나였다. 일본에서 유학할 때, '임전첩비(臨戰捷碑)'를 직접 보았는데, 이는 세계 전쟁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전부 한국인의 작품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버려두고, 외국인들만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왜일까?"[14]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조소앙은 한국인이 모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한문으로 글과 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중국인과 문학과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관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했다.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세계 문화에 대한 공헌이 크다. 그러나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며, 우리의 고대 문헌은 흙과 먼지로 뒤덮이고, 새의 발자국처럼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불길이 번져 잿더미로 변하고, 최근에는 강력한 재앙을 겪으며, 고대 문헌의 남은 부분마저 훼손되어 소실되었다. 아! 나라가 망하며 문화마저 사라지고, 후손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보물들이 하루 아침에 묻혀버리니, 어찌 울음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

13) "二千餘年之名文秀句, 概為包括于此矣, 歷代創業艱難之迹, 良相名將亡身報國之誠, 忠人义士慷慨之辞, 碩德逸隱, 佳人才子, 名媛高僧之作, 一以贯之于此, 如見其面目, 而煥乎其有文章焉, 是韓族文苑之一部英華也, 不啻華也, 實亦存啻.", 趙素昂, 「序」, 『韓國文苑』, p.3.

14) "餘於倫敦博物院, 見韓印之『三綱行實錄』是印字史上, 居第二位者. 之巴黎, 見法譯『春香傳』是一種有價値之文學. 來上海, 见好大王碑文, 此古代金石之最珍貴之一也. 留學東瀛時, 見臨戰捷碑碣之本身, 是在國際戰爭史有偉迹者, 凡此四物, 皆吾韓人之作也, 而遺弃不之顧, 獨爲外人寶者何哉?", 趙素昂, 「序」, 『韓國文苑』, p.1.

오늘날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이유이다."[15]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조소앙이 긴 시간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 그가 소장했던 많은 서적이 소실되었기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비록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은 우리 선조들의 막대한 유산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한국 한시 사료를 정리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

3) 한국 명인(名人)의 재능

조소앙은 작품을 선정할 때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했고, 그 목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나 그 인물의 문학적 재능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소앙은 많은 사람에게 현대 혁명가이자 전통적인 사상가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만큼, 그의 모든 저서에서 그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 『한국문원』을 비롯해 사서, 독립운동가들의 열전, 상소문 등을 모아 출판한 서적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조소앙은 한국이 국권을 상실한 뒤에도 계속해서 글을 썼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저서가 훗날 당시의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조소앙이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 선별해 낸 작가 중에는 한국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 꽤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그가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7권에서는 유리왕, 을지문덕, 진덕여왕, 최치원, 원효 등 오늘날 여전히 역사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고, 8권에서도 문종, 이인로, 이숭인, 예종, 현종, 일연, 정도전, 정몽주 등 중요한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지할 것은 이들의 작품이 『한국문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9권에는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는데, 양녕대군, 태종, 김시습, 김종직, 성삼문, 이황, 남효온, 조광조, 서거정, 선조, 이순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조소앙이 작품과 작가를 선택할 때 역사적 가치를 우선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소앙은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들이 하나같이 우수하고, 이 작품들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는데, 예상외로 조소앙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진리(眞理)를 가장 중요

15) "韓人之貢獻於世界文化也, 功亦大矣. 然而屢經兵燹, 龍圖瑞牒, 委於泥塗, 鳥跡玄文, 燼乎燎原, 近遭強秦之禍, 而古代文獻之遺存者, 複經摧殘, 喪亡殆盡. 噫國亡而文亦亡, 使我先遺傳之英華, 一朝而埋葬之, 安得不撫屍而哭耶! 此餘所以不揣孤陋, 特編此書於今日者.", 趙素昂, 「序」, 『韓國文苑』, p.3.

시했다. 그는 『한국문원』을 통해 역대 정사의 이익과 손실, 국제관계의 변천, 문체의 변화, 사상의 변화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 한문화(漢文化)와 근원에 대한 인정

조소앙은 『한국문원』을 편찬함으로써 한문화(漢文化)와 한문학(漢文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근원을 탐구하고자 했다. 조소앙이 서문에서 언급했듯 그는 한문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겼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방문하며 한문을 사용해 소통했고, 이미 한문화에 익숙해져 한문학의 중요성 또한 잘 알고 있었기에, 한국인이 한문에 능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다. 조소앙이 서문에서 언급했듯, 한문은 제일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기에 한문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었고, 그 덕분에 중국 문인들과 문학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문인들이 한국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은 아쉬움을 남기는 지점이다.

기존에 활동했던 한국 문인들은 한문화에 익숙하여 한국어로 창작한 작품이 출현한 뒤에도 일정 기간 여전히 한문을 사용해 작품을 창작했는데, 그들은 한국어가 일반화되어 한문보다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후에야 한국어 시를 위주로 짓기 시작했다. 『한국문원』에는 박팽년과 성삼문, 이개의 「短歌」 3수가 수록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어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한 작품이다. 조소앙은 이들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록함으로써 한국 문인들의 작품을 중국 문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나, 번역을 해오는 과정에서 한국어 주석을 달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5) 한국의 풍아 문화에 대한 존중

마지막으로 『한국문원』을 통해 조소앙이 한국의 풍아(風雅) 문화를 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소앙은 조선 시인을 비롯한 많은 고대 시인의 “풍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고대 한국의 문인들은 대부분이 한문으로 시와 글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능통했고,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이 자체를 “풍아”라고 볼 수 있는데, 조소앙은 『한국문원』을 편찬할 때, 사연이 있는 작가를 주로 선택하였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가령 그는 허난설헌의 시를 선별할 때, 특별히 「廣寒上梁文」을 선정하여 수록했는데, 우동의 『서당잡조(西堂雜俎)』에는 허난설헌이 여덟 살 때 이 시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에 허난설헌의 『난설헌집(蘭雪軒集)』에서 이 글을 발견하자 바로 『한국문원』에 수록한 것이다. 그리고 9권에 구원길의 「題徐菊莊

樂府」을 수록한 후 바로 서씨의 「宸苑識略」을 수록하였는데, 이는 서씨의 사작(詞作)을 구원길이 금병(金瓶)으로 사들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소앙이 한국 시사(詩詞)의 풍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조소앙은 한국 한문학 연구를 위한 기초 문헌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한국의 고전 문헌뿐만 아니라, 중국 문헌에서도 각 시대의 한국 문학 작품을 발견하여 수록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한국문원』 시의 출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시학(詩學)의 가치와 의의

조소앙이 편찬한 『한국문원』에 관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일찍이 민국(民國)시기 톈진(天津)의 『大公報·文學副刊』에 실린 「韓國志士趙素昂－－韓國文苑」이라는 글에서 미리 제시되었으며, 세 가지 주요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가치:

> "중국어는 오늘날 중국 4억 명의 사람들이 직접 읽고 쓰며 말하는 생동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동양의 다양한 민족과 많은 국가 언어의 기초이다. 중국어는 다른 동양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일본과 조선은 모두 자국어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상당하다. 중국어를 없앤다면, 모든 중국인은 그들의 의식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조차도 내 존재와 세계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어를 없앤다면, 중화 민족은 파멸과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고, 동양 역사와 문화 전체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그저 유럽과 서양 문화를 모방한 부차적인 것으로 남을 뿐이니, 아아, 우리 국민 중에는 자국의 언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언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이 많도다! 조씨의 책을 읽으면,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16]

두 번째 가치:

> "이 서적에는 지난 2000여년 간의 명문과 아름다운 구절들이 담겨있다. 역사 속 창조의 어려움을 겪은 흔적, 굳센 장수들의 충성과 국가를 위한 헌신, 충실한 의인과 정

16) "中國文字, 不但爲今日中國四萬萬人直接誦讀書寫口說行用之活文字, 且為東洋諸多民族諸多國家文字之所從出所由構成, 或一, 直接採用, 歷年悠久; 或二, 部分影響, 不易判分. 如日本與朝鮮, 雖各有其國文, 實皆屬於二之例. 苟去中國文字, 則中國每一箇人皆喪失其所有之意識; 苟去中國文字, 吾直不能想像尚有我身、尚有世界. 苟去中國文字, 則中華民族間將瀕滅淪亡, 而全部東洋歷史東洋文化亦不能存立! 所有者惟模仿歐美之西洋文化附屬品耳. 嗚呼? 吾國人多有不寶愛其文字, 不知此文字之地位及影響者矣! 倘讀趙君書, 亦可惶然悟.", 趙素昂, 『韓國志士"韓國文苑"趙素昂編』, 大公報(天津), 第8版, 1932. p.2.

의로운 자들의 기개, 훌륭한 덕을 지닌 이들, 아름다운 여인과 뛰어난 인재, 유명한 스님의 작품들이 모두 이곳에 담겨있다. 일관되게 담겨있는 작품은 마치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글에서 빛이 난다. 『한국문원』은 한 편의 "영화(英華)"로, 화려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리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 정사의 손실과 이익, 국제 관계의 전환, 문체의 변화와 사상의 변천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 서적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은 잊을 수 있으나, 물고기를 놓치면 안되듯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 이 책을 우호국에 전하는 것은, 공통된 언어와 유구한 역사를 기리며, 우리의 미덕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17]

세 번째 가치:

"아아, 나라의 형태는 사라질 수 있어도, 나라를 세우는 정신은 소멸될 수 없다. 잃어버린 물고기를 찾을 수 없다는, 조씨의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오래전부터 친분을 드러내며, 대국의 번창과 번영을 기대했던 조씨가 이 서적을 선물하며 우리 중국 국민들을 격려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이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가? 조씨의 서적은 이미 매우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 서적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자료가 많으나, 중국 전통 문헌이 매우 풍부한 것에 비해, 충분히 수집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8]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가치는 『한국문원』의 전반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한국 문학과 역사의 가치, 중요성 및 의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문원』의 시학적 가치와 의의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한국 한시사(漢詩史)의 의의

첫째, 조소앙이 편찬한 『한국문원』은 한국 한시의 발전 추세를 이해하고, 한국 한시사 연구를 위한 사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문원』에서 '고구려' 작품의

---

17) 이 부분은 서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二千餘年之名文秀句, 概為包括于此矣, 歷代創業艱難之迹, 良相名將亡身報國之誠, 忠人义士慷慨之辞, 碩德逸隱, 佳人才子, 名媛高僧之作, 一以贯之于此, 如見其面目, 而煥乎其有文章焉, 是韓族文苑之一部英華也, 不啻華也, 實亦存啻. 乃若曆世政事損益, 國交沿革, 文體變換及思想遞嬗之機, 亦可以展覽於斯矣. 為子孫傳此書者, 筌可忘筌也, 而魚不可失也. 為友邦公此書者昭其同文之久, 而欲其德之不可孤也.", 趙素昂, 『韓國志士"韓國文苑"趙素昂編』, 大公報(天津), 第8版, 1932. p.2.

18) "價值三也. 嗚呼, 國之形式可亡, 而立國之精神不可滅□得魚□□筌, 趙君之詞苦矣. 昭同文之夙誼, 期大邦之克保, 趙君之所以投贈而勗勉吾中國人者甚至, 吾國人將何以報之耶. 趙君此書搜已甚詳備, 然材料仍有所缺.此書所錄, 以見於中國之籍為多. 若夫純粹之漢文典籍, 尚極豐富, 集部尤繁, 均未采及, 殆由事實之困難耳.", 趙素昂, 『韓國志士"韓國文苑"趙素昂編』, 大公報(天津), 第8版, 1932. p.2.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고구려 시기의 한시 역사를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시대 한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불교시의 성행이다. 불교문화가 도입된 후, 불교 문학도 점차 번성하며 초기 한국 한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컨대, 승려 정법사가 고구려 때 창작한 「詠孤石」은 이미 알려진 최초의 한국 한시로 알려져 있으며, 불교시로 여겨진다. 이 작품은 중국의 『고시기』에도 수록되어 있어[19] 고구려 시대에는 불교시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시 일부를 보면 조선 한시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조선 한시는 이전 시대의 한시와 달리, 계급에 대한 불만과 민중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자유와 이탈에 대한 추구를 더욱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한시 작가들이 직면한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들이 창작한 작품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20] 또한, 9권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류시인들의 작품이 대거 수록되어 있어, 당시 여성시사(女性詩史)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조선 초기 여류시인들은 작가와 작품 두 방면에서 모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여러 사회계층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한시를 창작하여 자신의 재능을 드러냈고, 여성작가의 수와 작품 수가 대폭 증가했으며,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작가들도 점차 늘어났다.[21] 조소앙은 『한국문원』에 이숙원의 시 11수, 허난설헌의 시 27수를 수록했는데, 그중 허난설헌의 「遊仙詩」 100 수 중에서 4수만을 수록했다. 이로써 조소앙이 여성 시사(詩史) 의식이 뚜렷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문원』에는 승려, 도사의 시와 같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그 예로 8권에 승려 일연의 시가 8수 수록되어 있고, 9권에 석휴정의 시가 3수 수록되었다. 이는 우리가 승려 시사(詩史)를 이해할 수 있는 사료를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국문원』을 통해 한국 한시사를 간략하게나마 엿볼 수 있고, 한국 한시사의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 역사 문화의 의의

『한국문원』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역사의 단편적인 면과 풍토,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가령, 정몽주가 창작한 「使日本」에서는 그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처음 보는 풍경에 대한 놀라는 것도 잠시, 머지않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문종의 「夢至汴京作」에는 고려가 한동안 거란과 접촉하지 않다가 꿈속에서 갑자기 문종이 변경(汴京)에 도착하자 다시 임금을 모시고 관등을 관람하는

19) 김창룡, 「고구려 초창기의 한시 두 편」, 『한성어문학』, 32권, 2013, p.71.
20) 윤재환, 「조선후기 한시의 변모 양상」, 『국문학논집』, 16집, 1999, p.231.
21) 조연숙, 「조선 전기의 여성 한시」, 『세계한국어문학』, 4집, 2010, p.206.

모습이 나타나 있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당시 고려와 거란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이들이 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므로, 당시 고려와 일본 간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사회 풍속과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작품 중에는 이숭인의 「詠史」와 같은 역사를 다룬 한시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문원』에 수록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다.

3) 조소앙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

먼저, 『한국문원』을 통해 조소앙의 문학적 취향과 관심사, 그리고 그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조소앙은 사연이나 이야기가 있는 시인과 작품에 큰 관심을 가졌다. 비록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 중 대부분이 시화나 필기에서 발췌된 것들이었지만, 그 자체로 흥미로운 것들이었다. 주석과 평론에서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9권에 수록된 김종직의 「鵕述嶺」에서는 "신라의 박제상/ 나라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니/ 그의 아내 치술령에서 바라보며 울고만 있네."[22]라는 주석이 달려 있는데, 조소앙은 김종직의 「鵕述嶺」뿐만 아니라 유호인의 「鵕述嶺」에도 주석을 달았다. 이렇게 조소앙은 국가에 헌신하고 애국심을 드러낸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외에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의 작품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조소앙이 불교에 대한 흥미가 깊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문원』에서는 조소앙의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문인들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다양한 작품을 선별하였지만, 조선시대의 작품을 가장 많이 수록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때 많은 선조들의 작품이 사라진 상황에서, 적어도 조선의 작품만은 잃지 않고자 하는 그의 고뇌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는 일본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우리 국민의 학습 권리를 열렬히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 당시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문원』의 서문에서도 조소앙이 우리 선조의 작품이 전쟁 속에서 모두 불에 타 소실될까봐 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한국문원』을 편찬하는 것은 단순히 시를 모아 출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원』은 한국 시인들의 시학 관점을 보존하면서 조소앙의 시학적 이념 또한 보존하고 있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한국문원』에는 일부 작품에 대한 소전과 평론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학적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

22) "新羅堤樸上. 為國渡倭. 妻別鵕述嶺望哭雲.", 趙素昂, 「鵕述嶺」, 『韓國文苑』, 第9卷, p.226.

의 앞부분에 기재된 소전과 간략한 평론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선조들의 작품을 해석할 때 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조소앙 또한 이 부분을 고려하여 함께 기재하였다. 최치원의 작품을 예로 들면, 『한국문원』에 수록된 최치원의 작품 3수는, 『삼국사기악지』, 『고운집(孤雲集)』, 『택리지』에서 선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의 가장 대표적인 시집은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인데, 조소앙은 이 시집에서 작품을 선별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조소앙이 작품을 선별할 때 단지 유명도만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수록된 최치원의 작품은 조소앙이 『삼국사기악지』에서 선별해 온 「鄕樂雜歌」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동아시아 근대 수용과정에서 번역의 역할은 아주 컸지만[23], 그 당시에는 한국 작품이 한시 형식으로 번역되어 전파되는 경우가 드물었고,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조소앙의 관점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었는데, 두 번째로 수록된 「題伽倻山讀書堂」와 세 번째로 수록된 「智異山花開洞」이 그러하다. 이 두 작품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시 모두 바위에 새겨져 있던 작품이었고,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과 인생을 표현하였으며, 세속적인 괴로움과 고뇌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4) “韓詩輯佚”의 몇 가지 기능: 작품 보존과 문화 매개

『한국문원』은 한국 시인들의 개인 문집 이외의 작품을 수록하여 “韓詩輯佚”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심덕잠의 『고시원』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당시에 유명했던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서적이나 개인 문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의 시가 총집에 수록된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문원』에 수록된 작품의 출처를 조사할 때 대부분이 조선 후기 한치윤이 편찬한 『해동역사』를 참고한 것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해동역사』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원본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시간이 흐른 뒤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문선』 등 다른 시선집 혹은 총집과 비교해 볼 때, 『동문선』은 주로 시인의 개인 문집에서 시를 선별했기 때문에 조소앙의 “輯佚”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문원』의 주요 편찬 목적은 선조들의 작품을 보존하는 데 있었지만, 다양한 작품을 선별함으로써 한중 양국 문학과 문화 교류의 매개 작용을 하였다는

23) 이시활,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학』, 82집, 2023, p.262.

점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문원』은 한 시대의 작품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고대 조상들의 작품부터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 한국 한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자료가 될 것이다. 조소앙이 중국 문헌에서 한국인의 작품을 찾아냈던 것은, 한국 문학 작품을 조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었다. 『한국문원』에서 조소앙은 한국어 작품을 한시로 번역하고 한국어 주석을 달지 않음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이 한국 문학을 이해하기를 바랐던 것을 알 수 있고, 주지할 것은 『한국문원』의 편집과 출판이 초기에 중국에서 이루어져 한국 한문 문학을 중국에 빠르게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문원』은 특별한 한국 한시 총집으로, 한국 한시사, 선본학(選本學), 한학사(漢學史) ,민국시대 시가 총집의 편찬이나 동아시아 한시학사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학적 가치와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재까지 한국 한시와 한시학사(漢詩學史)에 관한 연구가 주로 고대 시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지만, 현당대 시기 한국에 등장한 한시와 한학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소앙은 정치 및 문화적 인사로 아직까지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의 『유방집(遺芳集)』이나 『소앙집(素昂集)』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없으며, 『한국문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동아시아 한시와 한학을 탐구함에 있어서 현당대 분야까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6. 결론

『한국문원』은 고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활동했던 시인들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구별하여 차례대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이 시대에 따라 구분되었던 것 외에, 편찬 체제나 형식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한국문원』의 편찬 체제와 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했다. 『한국문원』은 크게 시대순으로 작품을 수록했지만, 각 권에 수록된 시들은 특정한 배열 방식이나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한국문원』은 우리 선조들의 작품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하였는데, 대다수 작품이 모두 조소앙이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여 직접 선별해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문원』은 제각기 다른 체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조소앙은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역사서, 총집, 시선집, 시화, 필기, 별집 등 다양한 서적을 참고했으며, 한중 양국의 서적뿐만 아니라 일본의 서적까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가 소실된 작품을 정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

한국문원』을 통해 그 시기 문학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소앙은 한국 한문학 연구를 위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한국의 고전 문헌뿐만 아니라, 중국 문헌에서도 한국 문학 작품을 찾아내어 수록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조소앙의 문학적 취향과 관심사를 알아볼 수 있었다. 비록 『한국문원』의 주요 편찬 목적은 작품을 보존하는 데 있었지만, 다양한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문학과 문화 교류의 매개 작용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현당대 한국의 한시에 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고, 『한국문원』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문헌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비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한국 한시를 더욱 폭넓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고대에서 현당대까지 연구 영역의 확장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단행본>

趙素昂, 『韓國文苑』, 槿花學社, 1932.

<논문>

김창룡, 「고구려 초창기의 한시 두 편」, 『한성어문학』, 제32집, 2013.08.

윤재환, 「조선후기 한시의 변모 양상」, 『국문학논집』, 제16집, 1999.08.

이시활,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학』, 제82집, 2023.03.

조연숙, 「조선 전기의 여성 한시」,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2010.10.

황호덕, 「근현대 동아시아에서 지성과 담론의 교류; 정체(政體)와 문체(文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언어정치학과 조소앙(趙素昂) - 한문자(漢文字)의 맹서(盟誓), 조소앙의 선언, 성명, 강령 집필과 『한국문원』을 중심으로」, 『사림』, 45집, 2013.06.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趙素昂, 韓國文苑, 朝鮮, 詩選編纂, 意義
	영문	Cho So-Ang, *Korean Literary Garden*, Joseon, Poetry, Compilation

The Significance of the Compilation of the "*Korean Literary Garden*" Volume : Centered around Joseon Poetry

Noh Yeon-Song · Cao Xin-Hua

In recent times, many collections of Chinese poetry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Among them, Cho So-ang, who authored "Korean Literary Garden", is recognized for compiling poetic works from various periods. The poems included in "Korean Literary Garden" are arranged solely in chronological order, lacking any other discernible structure. Additionally, information about the birth and death years of the authors who created these works is listed without any specific rule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t the time when "Korean Literary Garden" was compiled, the focus was primarily on preserving the works of the ancestors.

This research work focuses on Cho So-ang's "Korean Literary Garden"and aims to analyze his intentions, compilation methods, the sources of the works, and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s. Additionally, examining Cho So-ang's writings on Korean classical poetry from the modern and contemporary periods provides insight into how Korea, having endure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ought to preserve literary works from the past. This serves as a significant point in reflecting on how literary figures resisted oppressive powers and engaged in the process of recovering Korea's cultural heritage.

저 자	제1저자	노연송 / 魯宴松 / Noh Yeon-Song				
	교신저자	조신화 / 曹辛華 / Cao Xin-Hu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11.	게재확정일	2023.12.14.